



골퍼 변신 윤석민의 드라이브샷 8일 경기도 가평 베네스트CC에서 제30회 야구인 골프대회가 열렸다. 사진은 KIA 윤석민의 드라이브샷 연속촬영 <스포츠조선 제공>

선동열 홀킵 25cm 붙여 '니어리스트'

야구인 골프대회 ... 두산 김선우 우승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토종 에이스 김선우(34)가 처음 출전한 야구인 골프대회에서 경쟁한 경정자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김선우는 8일 경기도 가평 베네스트 GC에서 열린 제30회 야구인 골프대회에서 18홀 합계 78타를 쳤다. 이날 경기는 신쾌록의 방식으로 진행됐고 핸디캡 7을 적용받은 김선우는 네트스코어 71타로 챔피언에 올랐다. 준우승은 88타를 친 뒤 핸디캡 16을 적용받아 네트스코어 72타를 기록한 김현욱 삼성 트레이닝 코치에게 돌아갔다. 한국시리즈와 아시아시리즈를 거꾸 제패한 류중일 삼성 감독은 참가자 중 가장 적은 76타를 스코어 카드에 적어내 메달리스트를 차지하고 야구인 중 골퍼 최고수 자리에 올랐다.
인기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 유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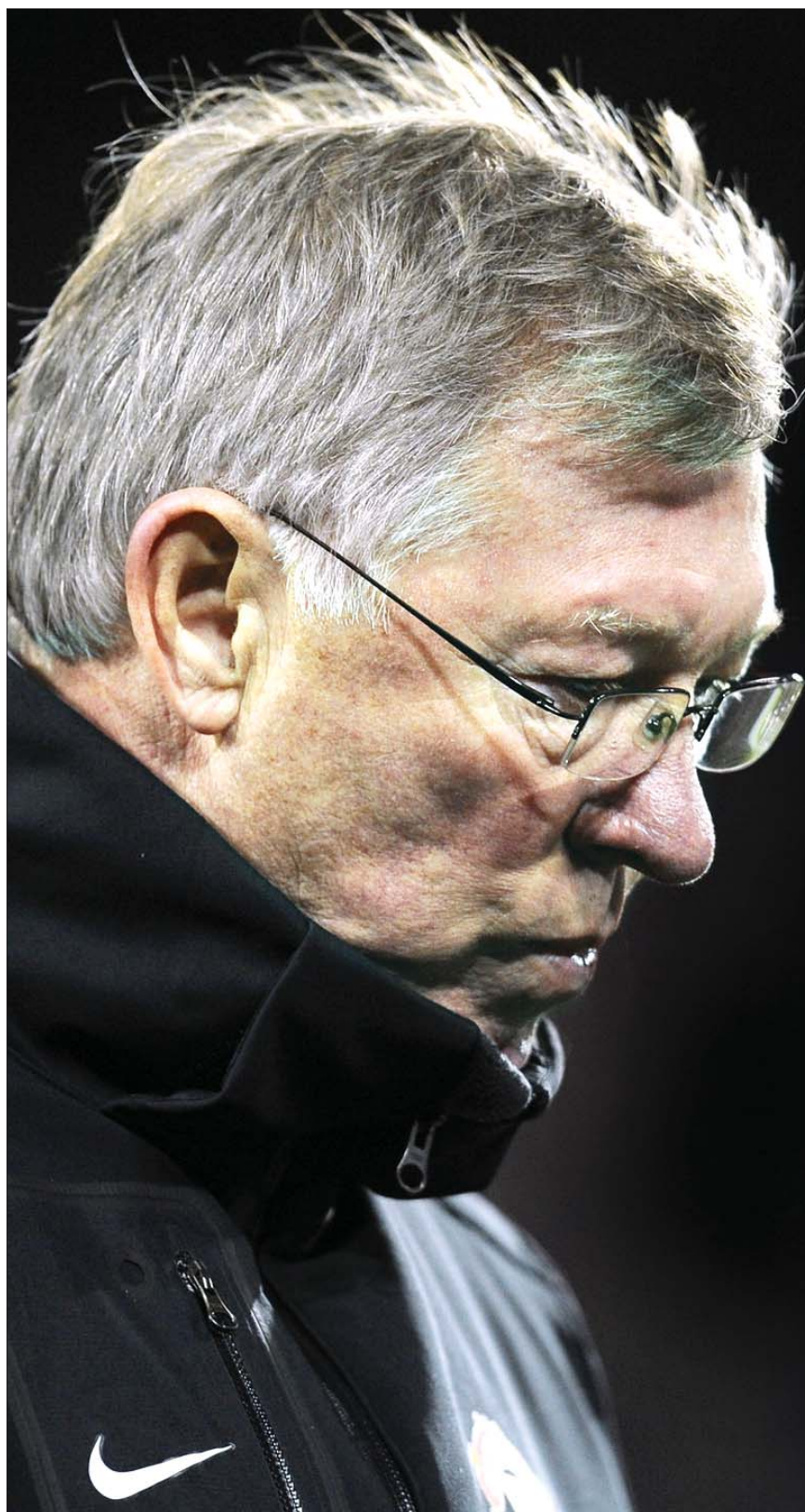
아버지로 유명한 김성갑 넥센 코치가 최장 타자에게 돌아가는 '통기스트'의 영예를 안았다. 김 코치는 9번홀(528야드)에서 드라이브 샷을 310야드나 날렸다.
선동열 KIA 감독은 파3 6번홀(121야드)에서 티샷을 홀킵 25cm 앞쪽에 붙여 니어리스트에 올랐다.
한국시리즈 우승팀으로 이번 대회를 후원한 삼성은 푸진한 경품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선물했다.
◇제30회 야구인골프대회 수상자
▲우승 = 김선우(두산·네트스코어 71타)
▲준우승 = 김현욱(삼성 코치·네트스코어 72타) ▲메달리스트(최저타수 기록자) = 류중일(삼성 감독·76타) ▲통기스트 = 김성갑(넥센 코치·310야드) ▲니어리스트 = 선동열(KIA 감독·25cm) /연합뉴스

윤석민 "황금장갑도 내 차지"

골든클럽 11일 시상식

황금장갑의 주인공이 11일 가려진다. 2011시즌의 대미를 장식할 프로야구 골든클럽 시상식이 11일 오후 2시30분 서울 SETEC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1·2부로 나눠 진행되며 프로야구 30주년을 맞아 레전드 올스타로 선정된 선동열, 이만수, 김기태, 한대화 감독, 박정태, 이순철, 장종훈 코치, 김재박KBO 경기운영위원장, 양준혁SBS 해설위원 등이 시상자로 나선다.
수상자는 야구 기자단·방송 관계자 329명의 투표로 결정되며 2011 골든클럽 수상

자로 선정된 선수들에게는 GS상품권200만원, 야구용품 브랜드ZETT에서 제공하는 선수용 글러브를 포함한 100만원 상당의 야구용품과 나이키에서 제공하는 100만원의 상품권이 증정된다.
골든클럽 최다 득표의 영예를 안은 선수에게는 500만원 상당의 롯데카드 상품권이 수여된다. 또 '페어플레이상'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수여하는 사랑의 '골든클럽브상', 한국스포츠사진기자회에서 선정하는 '골든포토상' 시상도 진행된다.
한국시리즈 우승과 아시아시리즈를 제패한 삼성 류중일 감독에게는 공로패가 주어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u.co.kr



맨유 '바젤 참사'

1-2 충격패 ... 챔스리그 6년만에 16강 탈락

박지성이 뛰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스위스 바젤의 벽에 막혀 2011-2012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맨유는 8일 새벽(한국시간) 스위스 상트 야코 파크 경기장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C조 6차전 최종전에서 바젤의 마르코 슈트렐러와 알렉산더 프라이의 골을 막지 못해 1-2로 졌다.
이 경기에서 지지만 않았으면 16강에 오를 수 있었던 맨유는 승점 9점으로 벤피카(12점), FC바젤(11점)에 밀려 조 3위로 떨어져 부루를 삼켜야 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준우승한 맨유가 이 리그의 16강에 오르지 못한 것은 2005-2006시즌 이후 6년 만이다.
바젤의 슈트렐러는 전반 9분 사커리의 슈트 맨유 데 헤아 골키퍼의 손에 맞고 튀겨 나온 공을 왼발 발리슛으로 연결해 결승골을 만들어 냈다.
바젤은 후반 39분 프라이의 다이빙 헤딩 슈트를 골로 연결시켜 2-0로 앞섰다.
맨유는 후반 44분 프레데리코 디체다의 슈트 골대를 맞고 나온 것을 다시 필 존스가 머리로 밀어 넣어 한 골을 만회했지만 전세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맨유는 최전방의 웨인 루니와 라이언 깁스, 나니의 볼 투입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바젤의 단단한 수비벽에 막히기 일쑤였다.
이날 선발 출장해 81분을 소화한 박지

성은 수비와 공격을 오가며 루니의 원투 공격을 도왔다.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다.
박지성은 전반 3분 각스의 전진 패스를 패널티 지역 안쪽에서 받아 이 경기의 첫 번째 슈트로 왼발 슈트를 날렸지만 골대를 벗어났다.
박지성은 전반 29분 오른쪽에서 올라온 나니의 크로스를 루니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튀겨 나온 공에 발을 갖다대는 약한 슈트를 만들어냈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가 아쉬운 한숨을 쉬었다.
바젤 박주호는 후반 수비수로 풀 타임을 소화하며 나니의 공격을 틀어막는 등 수비수로서 좋은 활약을 보여 팀의 16강 진출에 힘을 보탰다.
맨유가 선제골을 허용하고 나서 눈에 띄게 움직임이 둔해진 박지성과는 달리 박주호는 팀의 선제골을 지키기 위해 공격 가담을 최대한 자제하고 후반에서 맨유의 파상 공격을 막아냈다.
이날 경기를 마지막으로 16강에 오르는 8개 조의 1·2위팀이 모두 정해졌다.
A조에서는 조 3위로 보이던 맨체스터 시티(영국)가 결국 3위를 확정 지으면서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SSC나폴리(이탈리아)가 16강에 올랐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1·2위를 다투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나란히 본선 진출이 좌절돼 자존심을 구겼다. /연합뉴스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클리닝, 허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빗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사리 일체
- 이차기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 최대 500평매장

주차장 700명 주차격정

임동사거리 | 임선번적 | 한남

임동오거리 | 신원사거리

한국카랜드

임동 자동차처리 중간사거리(20번점)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 ▶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자종 17만원 ⇒ 12만원
- ▶ 아이나비KL100, 3D(8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50만원
- ▶ 아이나비ES500,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7만원
- ▶ 만도정품MD300,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 만도지니 J7,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48만원 ⇒ 40만원
- ▶ 모비스폰토스 PU-7, 3D+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60만원 ⇒ 52만원
- ▶ 모비스폰토스 K-7, 2D+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 트립형 매립차량용 상담후결정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만도 블랙박스 BN100

- ▶ 본인네비 매립 = 17만원 ⇒ 12만원
- ▶ 후방카메라 = 15만원 ⇒ 9만원
- ▶ 샤크안테나 = 10만원 ⇒ 6만원
- ▶ 만도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5만원 ⇒ 30만원
- ▶ 모비스블랙박스 4기가 전방 = 22만원 ⇒ 19만원
- ▶ 모비스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7만원 ⇒ 33만원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샤크안테나 및 통합안테나

도난경보기 | 이자카 | 스타트버튼

최고 추가부품(옵션) 차량은 금액이 추가 될수 있음 *차량용 고급합수 2만원 상당 무료증정

- ▶ E770B 40만원
- ▶ E770S 43만원 / E7-B 51만원
- ▶ E1 7만원
- ▶ E2620 10~14만원
- ▶ E7 37만원
- ▶ ET 17만원